논어 11편 선진 15장 · 원문·풀이

子貢問：「師與商也孰賢？」子曰：「師也過，商也不及。」曰：「然則師愈與？」子曰：「過猶不及。」

독음 · 자공문 사여상야숙현 자왈 사야과 상야불급 왈 연즉사유여 자왈 과유불급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고 했다. 지나침도 모자람과 마찬가지라는 과유불급의 말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師 스승 사 사

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商 헤아릴 상 상 / 也 어조사 야 / 孰 누구 숙 숙

賢 어질 현 현 / 曰 가로 왈 / 過 지날 과 과 / 不 아닐 불

及 미칠 급 급 / 然 불사를 연 연 / 則 곧 즉 / 愈 나을 유 유

猶 어미 원숭이 유 유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